이 "하마스 해체·인질 석방" 최후통첩…가자 전역 '맹폭'

병원·난민캠프 등 공격 수십명 사망…대규모 인명피해 반복
네타냐후 '종전' 의향 속 인질 석방 등 협상 진전없이 '헛바퀴'
두 달여 만에 식량 반입 허용…국제사회, 대규모 구호 촉구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체하고 생존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개시했다.

이는 항전 중인 하마스에 납치한 인질을 석방하는 휴전 협상에 동의하거나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 확대에 맞서 싸우라는 최후통첩 성격으로 보인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하루 동안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남부사령부 예하 병력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해체했으며 현재 주요 위치에 배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북부의 베이트 라히아와 자발리아 난민 캠프와 남부 도시 칸 유니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최후의 경고'라고 언급한 대피명령에서 "로켓 발사에 사용되는 모든 지역에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 민방위대 대변인 마흐무드 바살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공습으로 남부 알마와시 난민 캠프에서 22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공습으로 북부에서 그나마 부분적으로 운영됐던 인도네시아 병원도 폐쇄됐다. 이에 따라 현재 북부에서 정상 운영되는 공립병원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주민이 최소 46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4일 가자 전체를 재점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승인했으며, 15일부터 공습을 강화해 하마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지원을 위해 지난주 '하마스 테러시설' 670곳을 사전에 타격하기도 했다.

대규모 지상작전이 발표되기 몇시간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을 종식할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총리의 지시에 따라 도하 협상팀은 위트코프 계획(미국 중동특사의 일부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일시 휴전안)이든, 전쟁 종식의 틀 안에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이에 호응하듯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 협상의 타결을 위해 작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군 장병 대상 연설에서 "군은 인질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종전의 조건은 ▲인질 전원 석방 ▲하마스에 대한 추방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로 수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만 개방적 태도를 연출한 만큼 종전휴전 협상에서도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 없이 포로(인질)를 석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이스라엘의 한 고위 당국자도 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외신은 하마스가 합의된 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완전 철수, 인도적 물자 유입을 조건으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3월 초부터 가자 내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해왔던 이스라엘은 이날 봉쇄를 완화하고 식량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자 국경에 집결한 이스라엘 탱크. /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실은 "군의 권고와 하마스 격퇴를 위한 격렬한 전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작전상 필요에 따라, 가자에서 기아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양의 식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가자에서 기근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잇단 경고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조치가 형식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는)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방해받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재앙이 종식되고 기근도 확실히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전립선암 진단…"뼈까지 전이"

결절 발견 후 지난주 암 진단…악성도 판단 지표 최고 10점 중 9점
바이든 측 "호르몬 민감해 효과적 관리 가능…치료방안 검토 중"

조 바이든(82·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뼈로 전이가 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이 낸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aggressive form)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으로 특정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측은 "이는 좀 더 공격적(aggressive)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는 통상 글리슨 점수로 나타내는데 점수가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글리슨 점수가 7~10점이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혈중 수치가 20 이상이면 예후가 나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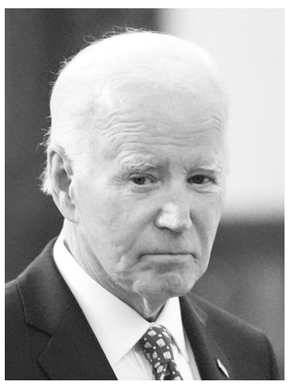
바이든 측은 앞서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으며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 100명 중 13명이 일생 중 진단받을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암에 속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82세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의구심은 재임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고, 지난해 6월 대선 토론 이후 유권자들의 그의 인지 능력에 대한 논란을 키우면서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에게 내주고 두 번째 임기 도전을 포기한 바 있다.

특히 CNN 앵커인 제이크 태퍼와 악시오스 기자인 알렉스 톰슨은 오는 20일 출간을 앞둔 저서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원죄)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작년 6월 중순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15년간 알고 지내온 톱스타이자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었으나 측근들이 상당 기간 이를 은폐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에 쾌유를 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멜라니아(트럼프의 아내)와 난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질(바이든의 아내)과 가족에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 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가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미국 플라스틱 원료에 반덤핑 관세

5년간 최대 74.9%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대만·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대한 최대 약 7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19일 개시했다.

로이터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국·EU·대만·일본에서 수입되는 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이 덤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본토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돼 19일부터 해당 지역 수입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미국 기업 74.9%, EU 기업 34.5%, 대만 기업 32.6%, 일본 기업 35.5% 등이다.

다만, 일본 기업 중 아사히카세이(24.5%), 대만 기업 중 포모사플라스틱스(4%)와 폴리플라스틱스(3.8%)은 개별 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5년간 유지된다.

앞서 중국은 2017년부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에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2028년 10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일평균 오염수 발생량 '역대 최소'

70t으로 9년전 대비 86% 줄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하루 평균 오염수 발생량이 약 70t으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일평균 오염수 발생량이 가장 많았던 2015년도와 비교하면 7분의 1 정도(약 14%)로 줄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사고로 녹은 핵연료 잔해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물과 사고 원자로로 흘러드는 지하수·빗물 등으로 인해 지금도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NHK는 지하수 유입을 억제하는 기존 대책 외에 강수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적었던 것이 오염수 발생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2028년도에는 일평균 오염수 발생량을 50~70t으로 줄일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8월부터 오염수를 정화한 물을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연합뉴스